삼성 디아즈, 외인 최초 50홈런 정조준

최근 5경기 4홈런… 42호 기록
23경기 남아 기록 달성 유력
원정경기에서 더 많이 넘겨
국내파 중엔 이승엽 56홈런
심정수·박병호 53호 아치

13일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 1회 말. 1사 주자 1·2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삼성 디아즈가 힘찬 타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라이온즈 르윈 디아즈(28)가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로는 최초로 단일시즌 50홈런 기록에 도전한다.

홈런 선두 디아즈는 최근 3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리는 등 최근 5경기에서 4홈런을 몰아치는 괴력을 발산하면서 올 시즌 홈런을 42개로 늘렸다.

그는 2025 KBO리그 최다 홈런 2위 패트릭 위즈덤(30개·KIA 타이거즈)을 12개 차로 밀어내고 홈런왕 타이틀을 예약했다.

이제 디아즈의 목표는 홈런왕 타이틀이 아니다. 역대 외국인 선수 중 그 누구도 밟지 못한 50홈런 고지를 향해 뛴다.

1982년 태동한 프로야구에서 한 시즌 50홈런을 터뜨린 선수는 단 세 명이다.

1999년 삼성에서 뛰던 이승엽이 54홈런을 쳤고, 2003년엔 이승엽(56개)과 현대 유니콘스에서 뛰던 심정수(53개)가 기록을 달성했다.

삼성 박병호는 넥센 히어로즈(현 키움)에서 뛰던 2014년과 2015년 각각 52개, 53개의 아치를 그렸다.

외국인 선수 중엔 50홈런 기록을 세운 경우가 없다. 2015년 삼성에서 뛰던 야마이코 나바로가 기록한 48개가 최고 기록이다.

디아즈의 50홈런 달성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는 올 시즌 출전한 121경기에서 42개의 아치를 그려 한 경기당 0.347개 페이스로 홈런 기록을 써 내려왔다.

현재 흐름을 이어가면 올 시즌 남은 23경기에서 7.981개의 홈런을 추가해 49.981개를 기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페이스를 잃지 않는다면 50홈런 기록 달성 가능성은 커 보인다.

최근 대구 밖에서도 많은 홈런을 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다.

디아즈는 그동안 홈구장의 이점을 톡톡히 누렸다. 삼성의 홈구장인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는 홈 플레이트부터 좌·우중간 펜스까지 거리가 107m에 불과해 홈런을 때리기가 수월한 구장으로 꼽힌다.

디아즈는 올 시즌 대구에서 열린 56경기에서 26개의 홈런(경기당 0.464개)을 때렸고, 이 외 지역에서 치른 65경기에선 16홈런(경기당 0.246개)을 생산하는 데 그쳤다. 홈에서 두 배 가까운 홈런을 몰아친 셈이다.

그러나 디아즈는 8월 이후 대구 이 외의 지역에서 열린 14경기에서 7개 홈런을 폭발했다. 두 경기당 한 경기꼴로 타구를 담장 밖으로 넘겼다. 내성적인 성격의 디아즈는 멘털 관리가 중요한 선수로 유명하다. 요즘엔 대구 밖에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면서 많은 홈런을 때리고 있다.

자신감도 커졌다. 디아즈는 최근 50홈런 관련 질문에 "뜻깊은 기록이 될 수 있다"며 "50홈런을 치고 그 공을 받을 수 있다면 집에 전시 해 둘 것"이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단독 선두 vs 2연패 8위 현대家 3번째 집안 싸움

전북 vs 울산 내일 28R 격돌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선두 독주 중인 전북 현대와 사령탑 교체 이후에도 쉽게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는 디펜딩 챔피언 울산 HD가 시즌 3번째 '현대가(家) 더비'를 펼친다.

두 팀은 30일 오후 7시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5 28라운드에서 격돌한다.

울산에서 열린 3월 1일 3라운드, 5월 31일 전주에서 개최된 17라운드에 이은 이번 시즌 3번째 현대가 더비다.

두 팀의 올해 첫 맞대결에서는 울산이 보야니치의 결승 골을 앞세워 1-0으로 이겼고, 17라운드에서는 전북이 3-1로 역전승을 거둔 바 있다.

올해 세 번째 만남을 앞둔 두 팀의 처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전북은 승점 60을 쌓아 굳건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다.

24일 포항 스틸러스에 1-3으로 덜미를 잡혀 리그 무패 행진이 22경기(17승 5무)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27일 코리아컵 준결승 2차전에서 강원FC에 극적인 2-1 역전승을 거두며 시즌 '2관왕' 가능성이 이어져 분위기가 살아났다.

3월1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과 전북의 경기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

반면 울산은 좀처럼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되찾지 못하며 8위(승점 34)에 머물러 2015년(7위) 이후 10년 만의 하위 스플릿 추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김판곤 감독이 물러나고 신태용 감독이 부임한 뒤 첫 경기인 9일 제주 SK전에서 1-0으로 이겨 공식전 12경기 만에 승리를 따냈으나 이후 16일 수원FC에 2-4, 24일 FC서울에 2-3으로 져 연패에 빠지며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판정 항의로 라켓 부쉈다가 벌금 5900만 원

US오픈 테니스 대회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고 라켓을 여러 개 부순 다닐 메드베데프(러시아·사진)가 벌금 4만2500달러(약 59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AP통신은 28일 "메드베데프가 경기 도중 비신사적인 행위로 벌금 3만달러, 라켓을 부순 행위로 벌금 1만2500달러 징계를 받았다"며 "이는 그의 단식 본선 1회전 탈락 상금 11만 달러의 3분의 1 이상 가는 액수"라고 보도했다.

메드베데프는 이틀 전 미국 뉴욕의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테니스 남자 단식 1회전 뱅자맹 봉지(프랑스)와 경기 도중 심판 판정에 심하게 항의했고, 패배가 확정된 이후 화를 참지 못하고 라켓을 부쉈다.

메드베데프가 판정에 불만을 나타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세트 스코어 2-0으로 앞선 봉지가 서브를 넣을 때 사진기자 1명이 코트에 들어왔고, 이는 폴트가 됐다. 그러나 체어 엄파이어가 봉지에게 다시 퍼스트 서브를 넣으라고 하면서 메드베데프가 이에 불복했다.

라켓을 부수는 메드베데프. 로이터=연합뉴스

새 희망을 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임직원 일동